

21세기 기독교가 직면한 도전들[2]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

민문홍(기학연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4. 문화적 도전 (정체성 회복과 중산층 물질주의 극복 문제)

후기 산업사회로의 발전은 서구의 선진국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가져왔다. 이 점은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의 형태로 유럽에서는 복지국가의 형태로 동시에 실현되었다.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의 시민계급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교회를 만들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온 것은 바로 이들 중산층 시민계급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교회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도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중산층의 주된 관심은 일과 돈이다. 이들은 일상적 삶에서 경력과 물질적 안락함과 부와 자녀 교육에 집착한다. 이들은 맑스가 지적한 같은 계급의식을 지닌 같은 범주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물질적 가치에 크게 집착하는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다. 중산층의 이러한 물질지향적 세속적 가치관의 형성에 미국교회들은 과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¹⁾ 미국 중산층의 노동관과 돈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는 데에 교회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미국교회를 대표하는 개신교의 청교도적 가치는 노동을 최상의 덕목으로 칭찬했다. 미국 개신교회들은 또한 근면과 검소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부를 축적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적 덕목들이었다. 그러나 앞서도 잠시 설명을 했듯이, 이러한 덕목들은 19세기의 세속화 기간 동안 명분을 잃었다. 그리고 원래의 종교적 덕목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노동, 저축 그리고 절제심이 확립되었다. 미국의 중산층이 존중했던 도덕적 삶이란 금욕적 자기훈련, 근면, 직업에의 헌신 그리고 자신의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었다. 중산층의 이러한 도덕을 자극하고, 이러한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몸소 실현하는 집단이 성직자들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경을 계기로 미국 중산층의 일상적 삶 속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대다수의 미국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던 물질지향적 삶의 집착에서 오는 비용과 고통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들은 그 해결책을 교회에서 다시 찾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풍요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물질적 삶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추구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비로소 미국의 중산층들은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면서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의 구체적 증거들이 깨어진 가정, 아동학대, 알콜중독, 마약중독이다. 미국의 교회가 21세기를 앞두고 새롭게 주목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가진 중산층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상담하고 돕는 것이다.²⁾

90년말을 계기로 한국의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문화의 정립과 일반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에 차분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되었다. 이들이 반성의 대상으로 삼아야하는 주제는 대체로 다음

1) R. Wuthnow, 앞의 책, 1993 불것.

2) R. Wuthnow, Christianity In The 21st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4장.

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21세기 초 지금의 한국사회와 문화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둘째, 기독교회는 무분별한 산업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진 극단적으로 조악한 개인주의 신앙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셋째, 일상적 삶 속에서의 권위와 성스러움의 붕괴 현상에 기독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일상적 삶의 의미상실과 가치관의 상실에 기독교회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빠른 성장 기간 동안에 세속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왜냐하면, 산업화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받은 고등교육과 전문직 훈련, 그리고 매스컴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기독교적 상대주의적 시각을 전제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의 “잘살아 보자는 철학”과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세속적 신념은 시민들의 일상적 삶 속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 후기산업사회적 가치관의 진입을 잠시 막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냉전 이데올로기가 물러가고, 탈냉전시대의 세기 말적 불안한 상황이 세계화라는 더 거세진 국가간의 경제 전쟁 양상으로 한국사회에 침투하면서, 한국사회의 가치관과 정신문화는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³⁾ 지구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을 요구하는 후기 산업 사회 시대의 새 세계관은 이제까지 냉전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유교공동체 이념에 안주해³⁾왔던 한국인들을 가치관의 공백상태로 내몰았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 상황에서 일상적 삶 속에서 인간의 귀함을 실현하는 교회 주도의 성숙한 시민운동과 정통교리의 새로운 해석을 위한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는 대신에 세속적 가치관을 교회 속으로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세속사회의 비자금 정치, 황금 만능주의적 가치관, 왜곡된 공동체주의(개교회 중심주의)가 그대로 교회 조직안에 재생산 된 것이다.⁴⁾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의 경제성장을 일부 사회학자들은 아시아적 가치나 유교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왔다.⁵⁾ 그러나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결과지상주의적 생각은 한국의 정신문화를 크게 손상시켰고, 그것의 주축이 되어야 할 교육정책을 황폐화시켰다. 자신의 자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숙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책임질 줄 아는 도덕적 개인주의 대신에, 이기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야만적 개인주의가 서구 생활 양식인 양 사회일반에 확산되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공지향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시민들의 삶의 태도를 교회시키기는 커녕, 이 세속적 가치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교회 안으로 침입함으로써 한국교회는 한때 교회성장에 기여한 것 같았던 그 요인 때문에 1980년대 중반부터 성장의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성장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삶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부패하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순교자적 자세로 빛을 밝힐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진지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다.

III. 맺는말 : 21세기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우리 사회의 현재의 가치관의 혼란과 무규범 상태는 유교적 관점에서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떠한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다. 이 장에서 필자는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에

3) 민문홍, “이데올로기와 지식인,” 『현상과 인식』, 1993년 여름/가을호, 통권 58호, 37-58쪽.

4) 류장현, “교회의 세속화와 새로운 종교개혁,” 『말씀과 교회』, 2000년 3호.

5) 유석춘, “‘유교자본주의’와 IMF 개입,” 『전통과 현대』, Vol. 6(가을호), 1998, 240-257쪽.

새로운 충격을 주고 현대적 삶의 가치관 제시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독교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기존의 이제까지의 선교 방식과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국내의 전도와 해외선교를 합쳐 그들이 우리 국민들의 심성과 전통적 가치관의 장단점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기독교 문화라는 복음과 새로운 대안적 정신 문화를 제시했는가에 대해 반성을 해보아야 한다. 기독교의 이러한 역할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기독교 지식인들은 더 이상 전통문화와 기독교 세계관의 단절이나 기독교도의 개종이 갖는 축복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불신과 미움을 사랑과 이해와 협동으로 바꾸기 위해 오늘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기독교 교리는 여기에 어떻게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독교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성찰을 해보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기독교계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충격과 문제점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성장위주적인 선교 방식이다. 기존의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한국의 전통문화 및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의 개종과 신자교육을 해왔다. 그 결과 새로 개종된 신자에게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보다 지속적이며 인격적 태도의 함양에 실패했다. 남을 헤아리는 마음과 협동과 신뢰와 사랑의 도덕을 정착시키는 대신에, 남보다 앞서고 남을 지배하고, 주변 환경을 정복하려는 사고를 심어주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삶의 현장에서 돕는 전도와 구제를 함께하는 선교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전통문화가 보존해 온 미풍양속과 도덕적 미덕을 너무 쉽게 버렸다. 그 결과가 기형적인 기독교 문화운동이다. 미국의 상업주의적 목회가 문서선교나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그 본래의 뜻을 왜곡해서 전파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극단적으로 전통문화를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교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잘 정리되지도 않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들-탈춤, 무당 굿-을 기독교회가 마구잡이로 수용했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 기독교는 선교 제 3시기(3rd epoch)를 맞아 전통문화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한 수용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는 자신이 가진 열정과 자원과 창의력으로 한국 사회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새 종교 문화의 창출에 앞장 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21세기를 앞둔 전통 사회의 문화적 잠재력과 창의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냉소적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전통종교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의 상징적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21세기초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또 다른 성인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기독교의 선교와 그것을 뒷받침 하던 서양문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다시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자본주의와 동양문명의 지혜가 강조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한국의 후진성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유교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다시 부흥하고, 근대화의 물결에 묻혀버렸던 전통 민속 풍습들이 다시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새로운 종교문화의 변혁기에 들어섰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유럽에서 사회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문제의식에 충실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가치관 회복과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 수양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정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냉소적이고 침체적인 상황을 벗어날 정신적 에너지를 어디에

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판적 지식인들의 침묵을 이상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다. 제 3기 문민정부인 참여정부가 임기 4년을 마친 지금 노무현 정부의 요란스러운 구호와 개혁실험을 지켜본 한국의 지식인들은 어렵듯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개혁과 민주화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다시 헌신하게 만들 수 있는 도덕적 이상과 종교적 상징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사회지도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도덕관습을 시민들 사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007년에 IMF와 유사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다시 진입한 한국사회는 상한 영혼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종교적 이상과 진실한 지도자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지식인들은 기독교가 후기 산업사회에 필요한 가치관의 제공과 공동체 의식의 계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종교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한국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나름대로의 삶의 모델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들과 그 안에서 시민들의 새로운 영성탐구에 발맞추어 유교나 노장사상은 예(禮), 성(誠), 신(信), 경(敬), 인(仁), 비움(虛) 등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언어로 새로 해석하고 한국의 새로운 정신문화적 지혜로 변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2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진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종교들이 새모습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거울삼아, 한국교회는 그 앞에 자신의 현 상태를 비추어 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현대한국 사회에 육화(incarnation)하지 못하고 이탈되고 타락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여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혁명의 도움 없이 새로운 사회질서를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과 중산층의 도덕성이 사회질서에 왜곡없이 비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평신도들이 자신들이 교회에서 배운대로 직장가정과 가정과 시민사회에서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올바른 복음의 선포와 그 복음을 배운대로 몸소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가치관과 도덕적 행동의 지침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교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 사회의 교회의 메시지는 지나칠 정도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달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이것을 중산층 물질주의라고 부르건,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건 이러한 삶이 성경적 기준에서 참된 기독교인의 자세가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⁶⁾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삶 속에서의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하는 고행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그 이유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현대적 사회생활에 맞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수범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를 주위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⁷⁾

몇 년전에 한국사회의 몇몇 종교 사회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중산층화를 걱정하는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에, 생활이 안정된 중산층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일상적 도덕적 담론을 듣는 사교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6) 박영신, "종교적 물질주의: 우리의 전통과 사회구조," 종교와 우리 사회, 앞의 책, 43-66쪽.

7) 이 점에서 한국 교인들 사이에서 헨리 나우웬 신부님에 대한 관심은 커다란 종교사회학적 의미를 지닌다. 헨리 나우웬의 다양한 번역서들 참조할 것. (영적 발돋움 등) 드아드리 라누에 지음, 유해룡 옮김, 헨리 나우웬과 영성, 예영 아카데미, 2004.

안타깝게 생각해서 나온 비판들이다.⁸⁾ 그러나 한국 사회가 21세기 선진국인 후기 산업국가 모형에 접근할수록 한국 시민들의 대다수는 중산층의 생활 양식을 가질 것이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목회 모델의 확립은 기독교 선교의 본분에서 떨어진 행동이 아니다. 현재 목회활동을 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21세기 초기에 한국의 중산층의 일상적 삶이 어떠하며, 이들의 영적인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살펴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생명력있는 설교와 제자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목회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은 현재 한국사회의 중산층은 적당한 부와 사회적 경력으로 자신감에 차있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에 지치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집단들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사회의 목회와 선교는 마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온 민중교회처럼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겨냥한 특화된 목회활동과 선교활동의 사명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21세기에 어울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걸맞는 일상적 삶을 배우는 것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목회자의 성경적 가르침과 제자훈련이 생명력을 갖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에게 신뢰감과 모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가르침과 실천이 일치되는 수범적 삶과 메시지 선포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물질주의적, 향락주의적 가치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의 삶과 성경적 가르침 속에서 자신들의 일상적 삶의 문제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배울 것이다. 이때 메시지의 내용은 과학과 전문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사회에서도 자신의 직업활동에 헌신적인 청지기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적, 헌신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설교의 오리엔테이션의 대체적 방향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축복과 영달 보다는 성결과 거룩한 삶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실천하는 향내나는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모습이다.

그러면 한국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부추기는 위의 세 가지 변화 추세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학적 해결책은 없는가? 필자는 한국사회 정치지도층과 사회지도층의 새로운 리더십 정립과 그것을 통한 새로운 일상적 시민문화와 국민적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긴 안목에서의 시민교육과 청소년 가치관 교육의 문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는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 작은 감동과 신뢰의 싹을 심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머리 좋은 박사들이 적어서가 아니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관료들이 적어서도 아니다. 한국사회가 무질서의 늪에서 방황하는 것은 서로의 좋은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여럿의 힘을 지혜롭게 모아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하며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국민적 신뢰감을 주는 지도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을 <작은 예수>의 리더십 또는 <큰 바위 얼굴식>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독교 문화 전통을 가진 유럽 연합의 정책 전문가들은 이것을 협치(協治, governance)에 바탕을 둔 21세기의 지도력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학력과 연고를 바탕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정치가, 어느 날 갑자기 대권을 움켜쥐고 싶은 사회지도층,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하고 싶은 성직자 등 거대담론의 꿈에 집착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작은 예수>나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같은 인물

8) 서우석, “중산층 대형교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 사회학, 1994년 제 28집 여름호, 151-174쪽.

이 너무나 귀하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동생처럼 정성스럽게 대하는 지방자치지도자들, 자신의 학생들을 자신의 분신처럼 그리고 꿈나무처럼 귀하게 대하는 선생님, 자신이 맡은 연구프로젝트 하나를 평생의 사업을 경영하듯이 헌신적으로 하는 학자, 자신의 신앙공동체의 신도들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대하듯 정성스럽게 섬기는 종교지도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인물들을 찾는 일을 포기해 버렸다.

한국사회를 지금의 무질서의 혼란으로부터 구하는 길은 소득 3만 불을 실현 할 수 있는 첨단산업도 아니고, 서민대중을 위한 또 하나의 정당 만들기도 아니며, 이벤트 식의 정책 입안과 정책경쟁도 아니다. 한국사회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생활의 장(場)인 가정과 지역사회와 직장과 신앙공동체에서 작은 감동과 신뢰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각자가 신실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미움과 불신과 오해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큰 독이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듯이, 우리사회의 커다란 불신과 증오의 벽은 뜻밖의 작은 운동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정치지도자와 종교지도자와 지식인들과 교사들 그리고 기업가들은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것을 한국 사회의 새로운 <작은 예수 운동> 또는 <큰 바위 얼굴 운동>이라고 부르려 한다. 이것만이 한국사회를 무기력하게 하는 집단적 대립과 소모적 경쟁을 불식시키는 길이다.